

①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 회의 개최 전문치의, 졸업생 8% 이내로

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(위원장 임형순)는 시행방안 중 소수정예의 비율에 있어 해당년도 졸업생의 8% 이내로 결정했다.

또 수련기관 지정요건으로는 구강외과 포함 4개 과목이상으로 하며 10개 과목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안이 결정됐다.

시행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서울치대병원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소수정예의 범위 및 전문과목 시행범위에 대해 집중 논의, 신중한 검토 끝에 이같은 치협안을 도출했다.

② 윤홍렬 고문 회장출마 길채비 모임 성황



FDI 차기회장에 출마하는 윤홍렬 치협 고문의 당선을 기원하는 모임이 지난 8월 27일 오후 5시에 교보빌딩에서 열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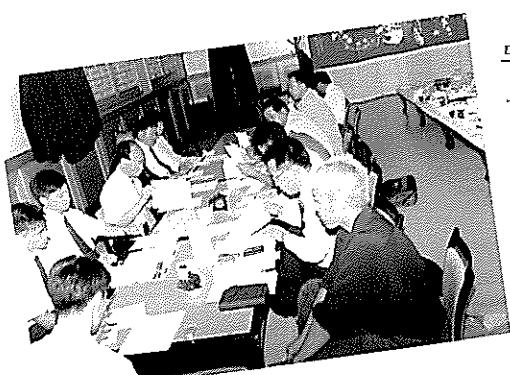
백순자 서울치대동창회 부회장은 윤 고문의 당선 길채비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FDI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윤 고문의 선거전에 서의 전망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길채비의 취지를 밝혔다.

이날 모임을 준비한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은 “명망있고 공인 의식이 투철한 인사로서 사회봉사에도 앞장서 왔다”고 윤 고문을 소개하고, “민간단체에서의 국제기구 진출을 정부차원에서 격려하고 기념하기 위해 길채비를 준비했다”며 윤 고문에게 박수를 보냈다.

이어 이기택 협회장은 “그 동안 윤 고문이 상임이사에서부터 재무이사까지 FDI에서의 기여도가 많아 틀림없이 당선될 것”이라고 확신에 찬 축사를 함으로써 윤 고문을 격려했다.

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성홍 외교통상부 차관, 김찬우 국회의원, 심재근 국회의원,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, 이기택 협회장, 신영순 서울지부장, 김지호 한국치정회장, 양원식 서울치대동창회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.

③ 제24차 APDC 서울총회 회의 개최



제 24차 APDC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28회 실무회의를 열고 그간의 업무를 보고하고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.

이에 이날 조직위는 난타공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위원이 많아 APDC 서울총회시 난타 공연을 개최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.

조직위는 또 지난 8월 22일에는 현재 통계청이 주관하는 가운데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 53회 통계청 국제학술대회의 개회식을 참관, 내년 4월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APDC 서울총회의 개회식 구도를 미리 그려보는 치밀함도 보였다.